

“대중과 결합된 운동이어야죠”

민중당 대구지부 노동위원장 장명숙 씨



함께하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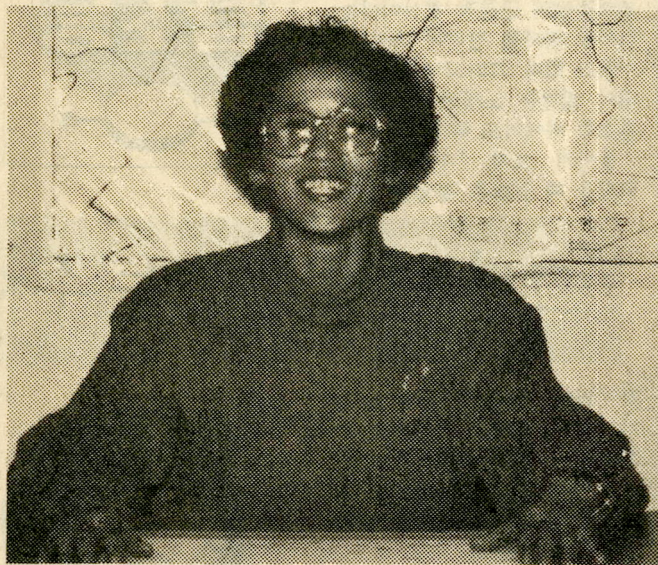
15살난 어린 소녀가 직장을 다니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싶다는 꿈을 간직하고 공장에 들어간지 20여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 꿈많은 소녀는 '지역노동운동의 대모'로서 노동운동가가 되어 있었다.

장명숙(38).

현재 대구지역 노동조합연합자문위원, 대구 노동자학교 교육위원, 민중당 대구지부 노동위원장으로 지역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공간이면 어느곳이든 달려가고 있다.

“이제는 노동운동을 80년 초처럼 비밀리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의 정치적 진출과 자주성·주체성이 확보되면서 대중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운동은 몇몇 지도자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활동 및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화하여 대중과 결합하는 운동을 해야합니다.”라며 과거의 수공업적인 활동 방식을 극복하고 구체적 실천 가능성이 있는 문제와 결합된 공개운동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장 위원장의 노동운동가로서의 성장과정은 지역노동운동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5살난 어린 나이로 12시간 맞교대, 한달에 한번 주는 휴일 등 사용주와의 노동관계가 노예적 관계임을 깨닫고 '개인적 항거'로서 시작된 그의 노동운동에 대한 출발은 74년 카톨릭노동청년회(JOC)에서 '노동조합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이다. 삼오방직부터 독서그룹조직을 조직한 이후 회사측의 부서이동, 퇴사요구, 해고, 블랙리스트 등의 반복은 몇군데의 회사를 전전하게 만든다. 76년 노동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크리스찬 아카데미 교육을 받으면서 노동자적 관점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고 78년 JOC상임위원으로서 영남권 노동교육을 담당



하면서 노동운동가의 본격적 활동이 시작된다.

아리라악기, 지구표 메리야스, 혜성양행 노조운동과 관련 농성지도 교육지도 등의 실질적 참여를 하게 되고 79년 오원춘 사건과 관련하여 한달간 구금을 당하여 고초를 받게 된다.

79년 결혼과 더불어 몇년간의 공백기가 있는데 이 시절 종교운동이 갖고 있는 한계와 노동조합운동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 고민하면서 85년부터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 이후 구미 노동사목의 활동을 하는 중에 “장명숙은 노동사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쟁의를 유발하고 있다”는 신부들의 화살과 함께 해고를 당하기도 한다.

이한열 열사의 죽음을 바라보며 지역활동가들과 공개운동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그 결과는 87년 7·8월 투쟁속에서 '민주노조건설 노동자 공동위원회(민노위)'라는 실제로 나타난다. 민노위 위원장으로서 노조결성지도와 상담·교육을 담당하면서 지역의 민주노조 결성에 중요한 계기를 만들게 된다. 민노위의 성과물은 '대경노련 준비위'에 일정정도 기여를 하며 지역내 공개운동의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장 위원장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의 1인3역을 해야하는 가부장제 사회의 (시집살이)였다. 결혼을 하면서 주저앉는 여성을 보면 한편으로 이해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길 없다며 “전선에서 있는 것 만이 운동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활속에서 끊임없이 성실한 변화를 시도하는 고민이 필요합니다.”고 강조한다.

90년 4·3선거구갑 보궐선거에 '노동자 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으면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참여를 하게 된다.

“많은 노동자들이 정치정세에 대단히 관심이 높음에도 노조 간부들은 노조와 정치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정치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의 질문을 받으면서 새로운 사회의 상을 어떻게 만들어 갈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거이후 '노동단체 공동위원회'사무국장을 맡게 되지만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과 조직에 대한 이견으로 해소되면서 노조운동이 현 체제에서 할 수 없는 내용을 새로운 측면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조직적인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노동자들이 정치의 주체로 나서야 된다는 것을 한번의 투쟁을 경험한 노동자들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노동운동의 정책적 대안과 조합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당적 조직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장 위원장은 마지막 말을 맺었다.

〈대구=이상태기자〉